

지 상 범 석

더불어 사는 마음 극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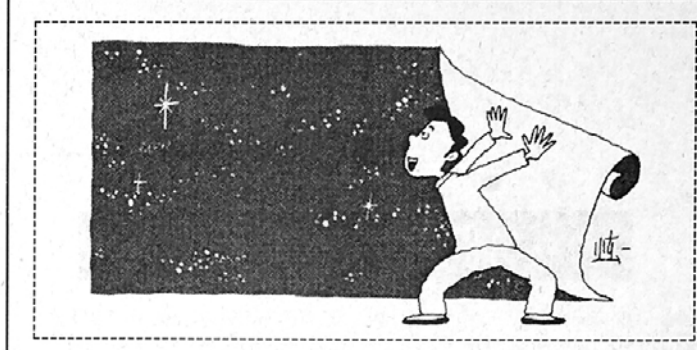
“자기만 깨우치고 가만히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깨쳤으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인도해야 합니다”

라는 상좌이며 아버지인 민씨도 뒤에 출가
하여 무득기왕이되었습니다. 두 부자가 스
님이 됐지만 아들이 사형이고 아버지가 사
제인 사형사제지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교각스님의 명성은 중국전체를
휩쓸고 신라에까지 자자했습니다. 수행자
들과 신도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절간이 9
백9십채나 났다고 합니다.
수행자들이 너무나 쇠락한에 시달리자
교각스님은 산자락 어귀로가서 땅을 파보
라고 하니 하얀 흙이 나왔습니다. ‘금강토’
라 하는데 쓸가루와 섞어서 국수를 만들어
먹었다고 합니다.
교각스님은 불법을 펴고자 중국에까지
간다는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불법을

하는데 모두 미친것이지요. 우리나라도 요
즘 사람들이 인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전
부다 ‘편안하게 살자’ ‘돈만 벌면 된다’ 하
는 생각만하니 옛사람이 죽는지 굶은 사람
이 있는지 병자가 있는지 모르고 살아갑니
다.
그러나 자식이나 손자가 제대로 배우겠
습니까. 3대도 못가서 집안이 폭삭해버리
죠.
우리 인간은 모든 잘못이 자신에게 있다
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남에게는
절대 허물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간에 많은 분쟁이 있는데 성불을 하여
가만히 안주해 버리면 정각자가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이 이겁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주인공이 정신차리려
다” “예”하고 정신을 차려서 수행을 했습
니다.
이세상에서 그렇게 좋다는 것이나 다정
한 것이나 좋은 물건이나 금극적으로 영원
히 함께하는 친구는 없는 것입니다. 친구도
몇번 안만나면 변해버려요. 또 물질도 세월
의 흐름에 따라서 다른사람에게 넘어가기
도 합니다. 죽어서 몸이 흩어지면 세간의
인연은 끝나버리지요.
부처님 말씀에 어떤 사람이 무슨말을 하
든간에 듣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
다. 듣는 지혜가 없으면 바람부는대로 실버
들 움직이듯이 변해버립니다.
그러나 저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이 신

면 답답하지요.
우리 자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과 같
이 항상 마음을 닦아내야 합니다. 수행으로
더러울 때를 닦아내면 언젠가는 부처님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만 부처님이 아니고 여러분도 부
처님입니다. 다만 깨치고 깨치지 못하고의
백지장 한장의 차이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자세로 살며 한칸 한칸 사다리
올라가듯이 깨침의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
다.
부처에도 법보에도 그 마음이 평등하여
두 생각이 안 생기는 경지가 되면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다 법보다 하는 그 마
음이 항상 평등해서 차별심이 안 생기는
경지가 되면 부처님 경지의 마음을 저절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부처님과 자기자신의 몸을 보고
평등안에 머무르면 머물것도 들을 것도 없
이 변하는 영연히 만나지 않는 나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부처님 지혜로 회향하는 마음을
내면 나는 그럴 생각이 없어도 언젠가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큰 인물로 보게되는
것입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있고 살고 생각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양행진
幻影의 밤하늘 I

밤하늘은 별이 있
음으로 해서 우리에
게 많은 것을 생각
하게 한다. 똑 같은
밤하늘을 보는 것이
지만 사람마다 그리
는 세계는 저마다
다르다. 같은 사람
에게 있어서도 어제
그렸던 세계가 다르
고 오늘 그리는 세계가 다르다. 사실은
잠시 전에 그렸던 세계도 지금 그리고
있는 세계와는 다르다. 같은 대상을 놓
고도 사람마다 다르게 시간마다 달라지
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이 밤하늘의 별만이 아니다. 우리가
지각하는 세계 즉 색수상행식(色受想行
識)의 오온(五蘊) 혹은 오음(五陰) 모두
가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화엄경
에서는 “마음은 유능한 화가라 같이 갖
가지의 오음을 그려낸다(心如工畫師 畫
種種五陰)”고 하였으며, 유마경에서는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心淨
則國土淨)”고 하였다. 마음의 문제를 잠
시 덮어두고 마음의 작용이 전혀 없는
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란 없다. 그
리고 우리는 마치
그 별이 지금 그
지대에 있는 것으
로 생각하면서 밤
하늘을 바라본다.
사실 우리가 보
고 있는 밤하늘이
란 이렇게 무수히
많은 다른 시간의
사건들이 지금 이
순간에 중첩되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 밤하늘
에는 몇초 전에 달
이 떠서 출몰한
빛도 있지만 10억
년전 우리 은하의
반대편에서 떠난
빛도 있고, 100억
년의 긴 여정을
마치고 지금 막
지구에 도착한
아주 먼 은하에서
온 빛도 있다.
우리가 보는
밤하늘이란 오직
개개의 다른 별들
이 내뿜는 과거의
영상, 과거의
잔영일 뿐이다.
그건 우리 눈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며, 관측 기
술이 덜 발달
되어서 그런 것
도 아니다. 우리
의 눈이 아무리
훌륭하고 관측
기술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우주의 구조상
그럴 수 밖에
없다. 철학자
아스퍼스의 용어
를 빌리자면 인간
이라는 존재에게
가해진 어

지혜없으면 선행 불가능... “자기잘못 남 탓 말아야”
아집·물질 집착하다보면 인성 잃고 싸움 휘말려

편견이지요.
이처럼 나는 성불하지 못해도 모든 중생
을 제도하지 않으면 성불 않겠다는 지장보
살의 원을 받들어 중생 제도의 삶을 살았
던 스님이 교각스님이지요.
화엄경은 부처님 자신이 깨쳐서 부처님
의 마음으로 보았던 것을 형상화한 것 입
니다. 마음으로 보는 것을 화엄경이라고 하
지 않습니까.
화엄경을 보면 부처님은 우리의 존재성
을 일깨워주는데 의미가 있고 문수보살은
지혜를 갖추는 수행법을 인식시켜주는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중생들의 지혜를 위해 문수보살이 항상
거기에 등장하는 것이지요.
화엄경을 보면 문수보살로부터 시작해서
보현보살에서 끝난다고 하는 말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혜없으면 착한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입니다.
대개 착심이 없어서 맹해버리면 그 사람
은 절대로 성불할 수 없습니다.
또 물질에만 치우치면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이란 똑같은 것인데 다르게 보고 그런
아집에 집착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
람이 80%이상입니다. 자기는 인미쳤다고

부처님께서는 체와 모양이 없는 줄을 자세
히 알고 세상은 모든 것이 시간적으로 변
화한다는 진리를 말씀 하셨습니다.
한살에서 1백살까지 사진을 찍어냈다 해
보세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변화한다는 것
을 알 수 있죠. 해마다 사진을 보면 제대로
변화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떠한
물건도 언젠가는 깨져서 모양이 달라져 버
립니다. 그러면 공간적으로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물질 하나도 작년에 본것과 올
해에 본것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
다.
또 그자리에 있지 않으니 허무합니다. 있
어야 할 사람도 보여야 되는데 안보이거든
요.
이 세상은 시간적으로 전부가 무상하고
공간적으로는 전부가 허무하지요. 그런가
하면 물건 하나를 놓고 봐도 내것이라고
해봐야 저녁에 도둑이 와서 가져가 버리면
내것이 아닙니다. 내것이라고 만들어 봤는
데 자식이 와서 달리면 안줄 수가 없어요.
이세상에 내것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
가 공동체로 쓰는 공유물인 것 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떤 스님은 그 마음이 욕
심으로 되찾아 갈려고 하면 혼자 앉아서

“참는 힘이 없는 사람은
아귀나 지옥에 떨어지기 쉽고
인욕 수행을 열심히 하는 것은
거울에 묻은 때를 닦는 일과 같아”
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
각하는 지혜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수행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만의
명이 있기때문에 내 생각과 내 입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내 수행은 신 구 의 일니
다. 그러므로 항상 몸도 입도 생각도 주의
해야 됩니다.
사람은 나쁜쪽으로 가기는 쉬워도 좋은
쪽으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수행이란 인욕
입니다. 참는 겁니다. 참는 힘이 없는 사람
은 아귀나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입니다. 거
울에 때가 끼면 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닦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

하고 하지만은 사실은 알고보면 주인공이
있지 않습니다.
욕체를 움직이는 이치 즉 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면 주인공의 입장에서 어떠한
무너짐도 없는 것입니다.
위없는 도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에서 무량한 주인공이 모든 도를 알고 무
량해서 모든 상대하는 것을 알게되면 두려
움이 없게 됩니다.
모든것이 내것이요 내책이니 무슨 두
려움이 있겠습니까.

별빛은 수억광년전에 내뿜은 과거 잔영
불법은 현상 배후에 존재하는 궁극원리

사진기같은 것이 찍는 밤하늘은 어떨까
를 생각하여 보자. 사진에 나타나는 영
상은 과연 지금 이 순간의 우주의 모습
을 보여줄 수 있을까?
현재의 기술로는 100억 광년 정도 떨
어진 지점까지 관측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 영역 안에는 1000억개 정도의 은하가
존재한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가령 50
억 광년의 거리만큼 떨어진 어느 은하에
서 초신성이 폭발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사건을 50억년
이 지난 다음에야 겨우 알 수 있다. 지
금의 우리가 그 사건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란 원리상 불가능하다. 그렇게 범
위를 확장하지 않고 그 반지름이 5만광
년 정도되는 우리의 은하 안으로 눈을
들린다고 하여도 이러한 상황은 마찬가지
이다. 우리 은하의 반대쪽에 위치한
별에서 오는 빛은 거의 10만년 전에 그
별을 떠난 것이다. 우주적 시간의 규모
에서 볼 때 10만년이란 물론 아주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그 동안에 그 별은
이미 없어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 맞다
면 빛보다 빨리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란 없으므로,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지
킬 수 없는 한계상황일 것이다. 우리가
우주의 구조가 강요하는 한계상황을 명
확히 인식할 수 있겠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보는 밤하늘은 오직 아름다운 하나의 환
영(幻影)일 뿐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
해진다.
그리고 그러한 대상을 모두는 우리에
게 환영으로 그렇게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자체도 영원히 존재하는 것들
이 아니어서 마치 물거품과 같이 잠시
나타났다가 본래의 자리로 사라져 가는
것 뿐이다. 인연법에서 벗어나는 예외적
인 존재란 없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일체의 유위법은 공이나 환상이나 물거
품이나 그림자와 같고 또한 일성이나 번
개의 갈다”고 하였다.
문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자가 의미
하는 진정한 뜻을 보면 글은 이의 의도
를 알 수 있듯이, 자연을 보더라도 단순
히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상의 배
후에 존재하는 궁극의 원리를 본다면 그
안에서 저절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불법이다. 오직 하나의 진리의 불법은
시방삼세(十方三世) 어디에도 예외없이
상주불멸(常住不滅)하며 상주불괴(常住
不壞)하는 것이다.
<고려대 교수·물리학과>

2천만에 깨달음을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안내
본사: 대표 02-737-8881, 팩스 02-737-0697, 광고국 02-737-0692, 전화 061-634-5114, 팩스 061-634-5188, 광주지사 062-375-9986, 팩스 062-371-7544, 대구지사 053-681-6364, 팩스 053-682-1426, 경기지사 032-613-4027, 팩스 032-665-0965, 목포보급소 0631-281-2534, 공주보급소 0416-856-3280

불교 성지순례
태국 5일 ₩569,000
대만·화련 4일 ₩515,000
해외신혼여행
여행조건: 10인 이상 출발 해외여행보험가입, 1일3식제공(기내식 포함), 전일정 1급 및 특급호텔 교통항공 및 전용버스 이용, 전문가이드 동행, 예약일전 마감(미주지역은 조기 마감)

특선행외여행
광·오사카 4일 ₩585,000부터
홍콩·미카오 4일 ₩559,000부터
동남아 3국 5일 ₩645,000부터
북경 만리장성 4일 ₩685,000부터
미국서부 7일 ₩699,000부터
캐나다해심 8일 ₩1,495,000부터
호주 뉴질랜드 8일 ₩1,230,000부터
유럽 4국 8일 ₩1,540,000부터

석림불교아카데미
제2기 수강생 모집
강의일시: 월, 목요일 늦은 2시(매주 2회씩)
강의내용: 아함경 속의 부처님 육성/정인스님(중앙승가대)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진홍스님(동국대, 철학박사) 선학의 황금시대/종호스님(동국대, 철학박사) 지자제와 불자의 자제/영담스님(석학사 주지) 정토의 실현/보광스님(동국대, 철학박사) 21C 정보화시대의 불교/정목스님(불교방송) 불교의 심층심리/모주스님(동국대, 철학박사) 불교음악의 세계/변규백(서울대) 진리 속에서 올바른 자녀교육/조갑조 박사(전국승단장) 불교문학의 올바른 이해/지현스님(시인) 불심과茶香/김애리(전통다례원장) 불교인의 건강 365일/김우재(금오한의원장)